

## 한홍조(韓弘祚, 1681~1712)

한홍조의 본관은 상당(上黨)이며 자는 영숙(永叔)이고 호는 암촌(岩村), 손재(損齋)이다. 아버지 한운원(韓崙源)과 어머니 전의이씨(全義李氏)의 2남 1녀 중 장남이다. 고향인 예산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기호학파인 권상하의 문인으로 입문하여 수학하였다.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하는 충청도 청풍의 황강 옆 한수재(寒水齋)에서 살았다. 권상하의 문학생들을 '강문(江門) 제자'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들을 가리켜 '강문팔학사' 또는 '호중팔학사(湖中八學士)'라고 했다. 한홍조도 강문팔학사 중 한 사람이다.

한홍조는 관직에 나가 활동하지 않았고 예산에서 학문을 갈고 닦으며 일생을 보내다 32세(1712)로 사망하였다.

한홍조의 저서로는 권상하가 제자들과 당론에 대해 문답한 것을 기록한 <강상문답(江上問答)>을 비롯하여 <동유록(東遊錄)>, <구봉선생래파변(九峰先生來派辯)> 등이 있다. <동유록>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구봉선생래파변>은 기호학파를 연 구봉(九峰) 송익필(宋翼弼)에 관한 세간의 여론에 대한 변론을 서술한 책이다.

<강상문답(江上問答)>은 일명 황강문답(黃江問答)이라고도 한다. 강상문답과 후동문답(後洞問答)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서간이 있다. <강상문답>에서는 권상하에게 회니시말(懷尼始末 : 송시열과 윤증이 노소분당에 이른 자초지종)에 관하여 질문하여 권상하가 이에 대답한 글이 실려 있다.

이유태(李惟泰)에 관한 것, 기해예송(己亥禮訟)에 관한 것, 김익훈(金益勳)에 관한 것, 정몽주에 대한 이이(李珣)의 평과 송시열이 신도비에서 평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한 질문, 이황(李滉)과 이이의 윤임(尹任)에 대한 평이 다른 점에 대한 질문 등에 관하여 권상하가 대답한 글이 차례로 실려 있다.

<후동문답>에서는 손님이 주인에게 이사(尼事)에 관한 질문을 하고 주인이 대답한 글로, 송시열과 윤증의 노소분당에 관한 전말을 실고 있다.

이성입설(尼城立說)과 윤증여나양좌서(尹拯與羅良佐書), 윤증여이완령서(尹拯與李完寧書), 윤증여박현석서(尹拯與朴玄石書), 윤증상우암제일서(尹拯上尤庵第一書), 우암답서(尤庵答書), 상우암제이서(上尤庵第二書), 윤증상우암서(尹拯上尤庵書), 이타우답윤증서(李打愚答尹拯書) 등의 서간과 여호집잡저(黎湖集雜著)가 있다. 이 책은 노론과 송시열을 두둔하기 위하여 엮은 것으로 공평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